

기도 말의 어법

박창해*

나는 이 글을 논문으로 쓰지를 않고, 지금까지 나온 주 기도문의 번역문들을 읽어가면서, 느낀 것을 솔직히 적어 가면서, 주 기도문의 어법과 어휘 선정 문제와 관련이 있는 몇 가지를 계언으로 말하여 가려고 생각한다. 이것이 좀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널리 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 필자 사툼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새로 번역한 성경전서를 대할 적마다, 새로운 문법 구조를 가진 주 기도문을 대하게 된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곤 하였다. 그 문 구조가 차츰 바른 어법을 지닌 문 구조로 발전하여 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다시 번역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만 간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직도 주기도문의 어법이 온전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성서공회사를 보면, 다른 나라의 성서 번역사와 비슷이, 대략 한 세대, 25-30년에 한 번씩, 성경 번역을 다시 함과 함께, 그때마다, 현대어화한 문 구조를 지닌 성경전서를 발행하여 오곤 한다. 그것은, 언어 사회가 쉬지 않고서 발전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 가는 번역 현상인 것 같다. 곧, 한 세기가 가면, 그 가는 동안에, 언어의 낡은 구문 구조나 표현 양식이 구세대와 더불어 가고, 신세대와 더불어 새로운 표현 방식이나 표현 양식이 오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 구조의 기본 구조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즈음의 우리 나라 성경 번역사에서는, 남들과는 달리, 한 세대가 채 가기도 전에, 우리 신학자, 언어학자, 문법 연구가는 물론, 우리말에 깊은 소양을 가졌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이들은, 우리가 새로 번역한 성경전서의 문장 구조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문장 구조를 다시 번역하여야 한다는 말을함과 함께, 새로 번역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다행히,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지난 십여년 동안에, *표준새번역 성경전서*(1993)와, 이어서, *개역개정판 성경전서*(1998)를 내어 놓았다. 그런데, 이 즈음에 와서, 또 다시 주 기도문을 새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만 간다. 왜 그럴까,하고 생각하여 본다.

필자가 아는 바대로 하면, 위의 두 성경전서들에 들어 있는 <주 기도문>의 어법은 우리말답지 못한 데가 있어서 그렇다. 솔직히 말하면, 성경 번역 위원, 그리고 번역문 심의 위원들 중에는, 다 그런 것 아니로되, 원전 문법을 한국어 문법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그러하였다. 내가 그런 번역 위원회나 심의 위원회에서 만난 분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번역 관계로 만난 성서 신학자 분들의 더러는, 원전 문법에는 정통한데, 거기에 견주어서, 한국어 문법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었다.

번역문 심의 모임에서 만난 어떤 분은, 우리말 어법에 잘 들어맞도록 번역하여 놓은 번역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전 문법, 또는, 영어 어법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으므로, 우리말의 바른

* 전 연세대 교수, 언어학.

문법은 세우지를 못한다. 위원 중 더러는 우리말 어법 연구를 덜 하신지라²⁾,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언어의 문법 규칙을 우리말 번역문 구조에 덮어 씌운다.

그런 결과를 보고서, 뜻 있는 분들은 <주 기도문을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다시 번역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그런 주장도 한다. 사실, 나도 여러 곳, 곧, 신학 대학원과 목회자 세미나, 등이나 교회 모임에서, 기회가 있을 적마다 늘 계속하여서 그런 말은 하여 온다. 그러면서, 이제는 평신도들도 원전 문법을 배워서, 성경말씀을 원전으로 읽어 가자,고 권한다. 우리는 우리말 어법에 들어 맞는 주 기도문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읽고,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그런 요망을 이루어냄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여서, 한국어의 어법에 바탕을 둔 <우리말다운 주 기도문의 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함을 살펴 보려고 한다. 곧, 우리말다운 기도말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떤 것인가,함을 말하려고 한다. 기도말의 기본적인 모델은, 물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문 구조다. 주 기도문의 생김새를 어법으로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의 현대어로 된 기도말의 어법의 구성 조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몇 가지 면으로 살펴 본다.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어법 구조를 잘 압이요, 또 다른 하나는 어휘 선택 문제를 위시하여서 몇 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아래에다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들을 적어 본다.

1. 번역한 주 기도문의 문법 구조와 어휘 선택의 문제
2. 번역인의 언어학적 소양
 - 가. 신학자/성서학자가 언어학자를 겸하여
 - 나. 신학자와 언어학자가 공동으로 번역에 임하여야
3. 번역에서는 무엇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가
 - 가. 문법 구조
 - 나. 어휘 선정 문제
4. 우리말과 원전 어법 사이에 대조 문법을 이루어 내는 일.
신학자와 언어학자가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서 번역 사업을 하여야 할 듯하다.

그러면, 위에 나열한 문제 중, 중요한 것만 여기에서 살펴 보려고 한다.

2. 주 기도문의 어법과 어휘 선택 문제

성경 원전을 읽어가면서, 헬라인의 사유와 헬라어 어법 관계를 면밀히 살펴 보면, 이것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마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려 주실 말씀을 기도말로 기록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만 이를 수 있는 말씀을 수동문 계열의 문 구조로 기도문을 이룬 것이구나,하고 직감한다. 그런 어법은 헬라인에게는 있는 것이로되, 한국어를 말하는 우리의 어법에는 없는 것이다. 곧, 우리 말에는 없는 그런 규칙으로 구성된 헬라어의 기도문을 우리말로 옮겨 놓으려고 하니, 번역상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남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주 기도문의 번역을 다시 하자는 말이, 한 세대가 가기 전인 데에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원전을 다루시는 분은 다 아는 바와 같이, 헬라인들은 원전 주 기도문에다가, 자기네 어법 규칙대로 수동태-부정과거-명령법-3인칭-단수로 된 서술어를 쓰거나, 현재분사-여성-단수-주격, 그리고, 수동태-부정과거-명령법- 2인칭 단수, 등등으로 구성된 말을 써서, 주 기도문의 문 구조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하여서 나타난 번역문에는, 다음의 (1)에서와 같이, 주 기도문을 구성한 어법이 우리말의 비는 말 어법과는 아주 다른 수동문 구조로 이루어짐을 보게 되고, 또 우리말의 존대법과 어긋난 어휘를 즐겨 쓰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문법 규칙과 어휘 선택

은, 우리말 어법에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첨가어에 드는 언어에도 다 없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런 문제들을 번역한 주 기도문이 지니고 있을까.

3. 비는 말의 어법

실제로, 어떤 면에서 그런 어법 문제를 우리의 주 기도문의 번역문 구조에서 안고 있을까. 예를 들고서 살펴 보자.

(1) 우리말 어법 규칙에서 벗어난 번역문의 예:

- | | |
|---|--|
| <p>가. <u>개역개정판</u></p> <p>a.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p> <p>b. 이름의 기록히 <u>여김을 받으시오며</u></p> <p>c. <u>나라가 임하시오며</u>,</p> <p>d. 뜻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p> <p>e.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u>주시옵고</u></p> <p>f.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p> <p>g. 우리를 시험에 <u>들게 하지 마시옵고</u></p> <p>h. <u>다만</u> 악에서 <u>구하시옵소서</u></p> <p>i.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p> | <p>나. <u>표준새번역</u></p> <p>a.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p> <p>b.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오며,</p> <p>c. <u>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u>,</p> <p>d. 뜻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게 하시옵소서.</p> <p>e.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u>주시옵고</u>,</p> <p>f.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p> <p>g. 우리를 시험에 <u>들게 하지 마시고</u>,</p> <p>h. 악에서 <u>구하시옵소서</u>.</p> <p>i.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p> |
|---|--|

(1)의 예문 두 가지 중에, (1가)는 개역개정판 성경전서(1998)에 나와 있는 주 기도문의 번역문이고, (1나)는 표준새번역 성경전서(1993)에 올라 있는 주 기도문의 번역문이다. 이 두 가지 번역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다시, 주 기도문을 다시 번역하여야 한다고 하는 소리는 높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번역한 기도문의 어법이 ‘우리말답지 못한 데’에서 그런 말이 그치지 않을 것이리라.

그러면, 번역한 주 기도문 구조에서 그런 부분은 어떨까. 나는 위에 보인 두 가지 번역문에다가, 어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 놓았다.

이제로부터, 우리는 번역문 중에서, 기도문을 이루고 있는 문 구조들이 어떤 모습을 하여야만 잘 짠 문 구조 well-formed sentence structure를 이룰 수 있을까,함을 살펴 보려고 한다.

4. 호칭에 관한 문제

번역문 (1가a)와 (1나a)를 비교하여 보자. (1가a)에는 호격 조사라는 것을 넣었고, (1나a)의 문 구조에는 그 조사라는 것이 없다. 우리는 살아 계신 자기 아버지 앞에서도 호격 조사를 쓸 수 없다. 하물며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호격 조사를 써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그러므로 주기도말의 첫 부분의 부름말에다가는 호격 조사를 쓰지 말아야 한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치고, 자기 아버지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여’하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없는 것은, 그런 어법이 한국어 어법에 없기 때문이다. 어법은 말로 하는 예

절,예법이기 때문이다. 혹시,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를 때에는 ‘아버지여’하고 부를 수 있다.

5. 기도말의 수동문을 이해하기 쉬운 능동문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은

(1가b,c,d)와 (1나b,c,d)의 문 구조의 원전은 수동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헬라인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빌 때에, 그 비는 말의 응답을 구하려고 하면, 그 비는 말의 문 구조를 수동문으로 구성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 습관은 어법을 부른다. 그러나, 한국어를 말하는 우리에게, 그런 비는 말에다가 수동문으로 구성된 말을 쓰지 않는다. 곧, 원전 (1가,나b)의 헬라어로 구성된 비는 말에 들어선 서술 동사를 보면, 그것은 주어에 대하여서, 수동태-부정과거-명령법-3인칭-단수에 해당하는 말을 썼다. (1가c)에서는 부정 과거-명령법-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동사를 쓰고, (1가d)에서는, 원동사의 부정과거-명령법-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동사를 썼다. 그것은 헬라어인의 기도법을 문 구조로 표출할 때에 쓰는 말의 어법 체계다. 그런 동사를 써서 이룬 문 구조가 수동문 구조다.

그런데, 그런 수동문 구조로 구성된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알아듣기 쉬운 능동문 구조로 전환하여서 쓸 수는 없을까. 현대의 언어학 이론을 빌리면, 그런 수동문 구조로 된 말에다가 **전환 규칙 transformation rules**을 적용하면, 그 수동문 구조를 능동문 구조로 전환하여서 쓸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현대 언어학 이론으로 한국어의 통어 이론을 연구한 이들이 그런 전환 규칙을 우리 학계에 소개하여서, 지금은 그런 이론이 문법, 또는 **통어론 연구의 핵심 요소**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현대 언어학 이론 연구에서는, 거의 상식적인 이론처럼 대중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예 하나를 여기에 들어 본다. 예문은 우선 수동문 구조로 구성하는 문 구조를 능동문 구조로 전환하여서 쓴 예를 들어 둔다.* (2가)의 문 구조는, - 꼭 그런 것은 아니로되, 그 글에서 고유명사는 다 기호화하였기 때문임.- 어떤 영문학자가 동학 교수가 파면당하는 것을 보고서, 조선일보에 쓴 글에서, 끌어온 것이다.

(2) 가. M 교수가 X 대학교에 의하여 파면되면, <- 영어식 수동문 구조로 이룬 문장
M 교수가 학생들에 의하여 영웅시되리라.

나. M 교수가 X 대학교에서 파면되면, <- 순한 우리말 구조로 이룬 수동문
M 교수가 학생들에게 영웅시되리라.

다. X 대학교가 M 교수를 파면하면, <- 위의 수동문 구조를 언중이 늘 쓰는 말로 전환한 능동문 구조
학생들이 M 교수를 영웅시하리라.

(2)에 보인 예문 가,나,다의 세 가지는 다 각각 우리말로 서술한 문 구조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문 구조들은, 그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이 다 각각 다르다. (2가)는 영어식인 화법을 모방하여서 이룬 한국어의 수동문 구조요, (2나)는 전통적인 우리말 구조로 구성된 수동문 구조다. 그리고, (2다)의 문 구조는, 한국인이 즐겨서 쓰는 능동문 구조로 구성된 말이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문 구조가 표출하는 의미 내용은 다 같다. 곧, 그 세 가지 문 구조의 의미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 M 교수를 파면한 학교는 X 대학교이고, 그 학교에서 파면을 당한 교수는 M 교수임>을 우리는 다 안다. 그리고, 그 교수의 파면을 보고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한 사람은 <학생

* (2가)의 예문 구조는 어떤 영문과 교수가 M 교수가 파면 당하는 일을 말하면서 신문에 발표할 글 중에서 끌어온 것인데, 그 글에서 고유명사는 모두 M, X로 기호화하여서 적었다.

들>이다. 학생들이 그 교수를 어떻게 보리라고 가정하였는가. 그것은 <그를 영웅시하리라.>다.

그런데, 그런 능동문의 의미 내용을 담은 문 구조를 이 즈음의 젊은 지식인-현대의 지식인-들은 수동문 구조로 이론 문 구조로 표출한다. 이 즈음에, 우리 언어학계에서, 한국어의 통어 이론을 다루는 학자들은, 그런 능동문 구조에 전환 이론을 도입하여서, 수동문 구조로 전환시켜서 쓸 수 있는 전환 규칙을 찾아놓았다. 그런 규칙을 따르면,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주 쉽게, 그리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전환하는 방식은, 곧, (2가)의 수동문 구조에서 (2나)의 또 다른 수동문 구조로 전환할 수도 있고, (2나)의 수동문 구조에서 (2다)의 능동문 구조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격으로, 곧, 그 반대 방향으로 문 구조를 전환할 수도 있다. 전환 이론대로 하면, 위에서 보는 예문들은, 그 문 구조는 달리 생겼어도, 그 문 구조들이 표출하는 의미는 같다.

그런데, 그 세 가지 가운데서, 언중은, 특히 외국어에 접하여 보지 못한 이들은 보통 (2다)의 능동문 구조로 구성된 문 구조를 써서, 비는 말로 하고, 일상 대화말로 쓴다. 그런 것이 우리말의 실상이다.

능동문 구조로 구성된 문 구조는, 그 말을 시작한 사람-능동주/동작주 agent을 주어로 하고서, 말을 시작한다. 곧, 그 주어로 등장하는 사람을 통어 기능으로 보면, 주어에 오른 사람은 말의 능동주 actor다. 그 능동주의 동작을 서술하는 서술 동사는, 타동사로서, 그 문 구조의 마지막 분포하면서, 그 문 구조를 끝맺는다. 그런데, 그 문 구조의 서술어로 쓴 서술 동사-타동사에 첨가하는 종결 접미사는 단정 서술(斷定敘述)을 의미하는 종결 접미사 {-다}이다. 그리하면, 그 서술어와 그 접미사는 배합하여서, 서술어절을 이룬다. 그런 서술어절로 끝맺는 문 구조는 평서법으로 구성된 단정문 구조(斷定文 構造)를 이룬다. 그런 서술어에, 문의-이론 바, 의문(疑問)을 의미하는 종결 접미사 {-가}/-까/-를 첨가하면, 그 문 구조는 평서법으로 쓴 문의문 구조(問議文 構造)를 이룬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문 구조 중에서 어떤 것이, 그 의미 내용을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잘 전달하여 줄까. 필자는 일반 언중을 상대로 하여서, 그 중에서 가장 잘 쓰는 문 구조가 어떤 것인가, 함을 조사하여 본 적이 있다. 내가 조사하여 본 대로 하면, 제일 흔히 잘 쓰는 문 구조가 (2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이 (2나)의 문 구조라고 한다. 속독으로 책을 읽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 내용의 이해도를 측정하여 보아도, 그 문 구조의 의미 내용을 가장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역시 (2다)의 문 구조요, 버금이 (2나)요, 나중이 (2가)의 문 구조라고 한다. 그런 데에도, 순한 우리말 어법을 잘 모르는 어떤 외국어-영어 선생은, 습관적으로, (2가)의 문 구조를 아마 앞 세울지 모른다.

문법을 배운 사람에게 (2)의 예문 구조의 구성을 보이면, (2다)의 주어는 'X 대학교'와 '학생들'이고, 목적어는 'M 교수'라고 지적할 것이고, 서술어는 타동사인 '파면하다'와 '영웅시하다'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말 어법에서는, 그런 주어 대한 서술 동사는 타동사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그 동사를 놓고서, 부정 과거, 명령법, 3인칭, 단수, 등등의 문법 규칙이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곧, 우리말 어법에는, 그런 규칙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첨가어에 드는 언어들에는, 그런 통어 규칙이 다 없다. 남의 말에 그런 규칙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말보다 앞선-더 발전한 언어라고 할 사람은, 언어학자들 중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의 얼굴이 다 달리 생긴 것과 같이, 언어 구조도 언어마다 다 달리 생겼을 뿐이다. 남의 말에 있는 어법 규칙을 우리말에 덮어 씌울 수는 없다.

이제, 우리의 안목을 (1)의 주 기도문 구조로 돌려서 그 문 구조를 논하여 보자. 그리하면, 신학자, 또는 성경 주석가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주 기도문의 문 구조 양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들을 따르면, (1a)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분을 부르는 말

이다. 부르는 말에서 이른바, 호격 조사라는 {-여}에 관하여서는 앞에서 말하였으므로, 더 언급하지 않겠다.

(1가)와 (1나)의 b,c,d와 (1가)와 (1나)의 e에서 h까지의 비는 말로 기도하면, 특히 b에서 d까지의 문 구조로 기도하면, 내가 주 기도문을 풀이하는 방식대로 하면, 그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말을 들으시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를 수 없는 기도말이고**, 그 이하의 문 구조는 기도자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청원하는 의미 내용을 담은 비는 말이다. 그 두 부분에서는, 비는 말이 품고 있는 의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기도말의 문 구조 구성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특히, 앞 부분 b-d의 구절을 종말론적인 면으로 풀이함을 잘 안다. 여기에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이른바 다 아는 줄 알고, 더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말 구조에다가 그런 풀이를 담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풀면, 우리는 한국어로 구성한 주 기도문 문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1가)의 b,c,d의 문 구절의 주어에는, 주어로 쓴 명사에, 주어 자격 접미사 (이른 바, 격 조사라는 것) {-이}/-가/가 가서 첨가하여 있는데, (1나)의 b의 문 구조에는, {-이}를 쓰지 않을 것이고, {-을}을 붙였다. 곧, 표준새번역의 주 기도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며'라는 구절의 '이름'에는, 이른 바, 주격 조사라는 {-이}를 첨가하지 않고서, 이른 바, 목적격 조사라는 {-을}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그런데, 그 다음 문 구조들에서는, 명사 '나라'와 '뜻'에다가 주격 조사 {-이}/-가/를 첨가하고들 있다. 아마도, 주 기도문의 문 구성 방식을 아는 분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줄 알므로, 더 설명하지 않겠다. 나중에, 대조 문법에 관한 말을 할 때에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 어찌하여서, 헬라어에서는 거의 같은 어법 양식/문법 구조로 구성된 그런 구절들을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문 구조에는, 그 구절들의 구성을 두 가지로 옮겨 놓아야 할까. 곧, 우리 번역문 구조에서 한 구절은 주어절로 시작하고, 또 한 구절은 목적어절로 시작하여야 할까. 그 두 구절을 한 가지 구조로 번역하면, 주 기도문의 참뜻을 이해함에 도움을 더 줄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참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문제는 대조 문법이론을 아는 분들만이 정확히 알 수 있다. 번역가는 언어 사이 있는 서로 다른 특질들을 대조하여서, 그런 것은 이렇게 번역한다고 하는 또 하나 어법 규칙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비는 말의 어법 구조는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말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6. 비는 말의 문 구조 유형 - 대조 문법 연구와 관련하여서

비는 말의 문 구조는 우리말다운 어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 오셔서, 하늘 나라가 가까왔다,고 선포하신 뒤에, 우리들에게 기도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가정하여 보면, 누구나 동일한 대답을 머리에 떠 올릴 것이다. 곧,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기도말은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아닌 우리말일 것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 원전에 들어 있는 헬라어로 구성된 주 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할 적에는, 우리 민족이 다 아는 우리말의 어법대로 번역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는가.

어떤 신약학자는 말하기를, 원전에 있는 어법이니, 그런 어법 규칙을 우리말로 번역한 주 기도문 구조에다가 옮겨 놓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어법 규칙이 우리말에는 없는데, 어떻게, 어찌 그런 규칙을 우리말 기도문에 옮겨 놓을 수가 있을까. 원전을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나, 원전 문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의미 내용을 설명하여 주어도, 헬라인이 아니거나,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설명을 듣고서, 그 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당연

한 일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설명을 하여 주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은, 우리말 어법에, 그런 규칙이 없기로서다. 가령,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동사는 '수동태-부정과거-명령법-3인칭-단수'로 쓴 것이라든지, 또 어떤 동사를 놓고서는 '현재완료-수동태-직설법-3인칭-단수'라든지, 또 어떤 것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신적 수동태', 또 그것은 '종말론적 시간'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고 하면, 헬라어를 모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나는 여러 해 전에, 헬라어의 문법을 배우고, 읽고 읽고, 또 읽었어도 원전을 보면서도, 신학적 소양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것의 참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종말론적 운운'이 무엇을 뜻하는가,함을 알려고 하여서, 어떤 신학원대학원에서 열어 놓은 교의학-조직신학-강의를 1년여 동안 듣고서야, 주 기도문을 이룬 구절구절들의 참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런데, 나-언어학 이론을 좀 아는-같은 평신도도 그런데, 다른 분들이야 어떨까. 어떻든지, 위에서 예로 든 어법들은 우리말에 없으니까, 신적 수동태, 등등을 우리말 기도문에 옮겨야 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 주어야 한다. 그보다는, 두 언어의 어법 구조를 대조하여 가면서, <헬라어에 있는 그런 어법 규칙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대조 문법 이론>을 확립함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인 것 같다.

대조 문법을 세울 수 있어야만, 그런 번역을 분명히 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런 언어 연구의 방법과 그런 언어 분석 기술을 지니지 못한 것 같다. 곧, 그런 방법 기술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다. 우리에게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언어를 말하는 나라들을 보아도, 없는 데가 아직 많다. 있는 데는 <대조 문법 이론>을 확립한 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약학자와 언어학자들이 앞으로 할 일은 미개간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대조 문법 이론을 세우는 일**이다. 그리 하여야, 주 기도문의 문 구조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길을 여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구성된 **비는 말의 문 구조 유형**은, 그 어떤 시대가 되어도, **순수한 한국어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구조를 순 우리말 어법에만 있는 규칙으로 구성된 단순문 구조로 보면, 그 문 구조는 주어절과 서술어절로 배열함을 우리는 안다. 그 문 구조의 서술어절의 어간 동사가 자동사이면, 그 문 구조는 자동문 구조이고, 그 서술어절의 어간 동사가 타동사이면, 그 문 구조는 타동문 구조인데, 그 동사는 이른 바, 목적어절을 끌어 당겨서 부러야만, 그 동사는 그 문 구조의 주어절의 어간으로 있는 주어-명사의 동작이나, 상태나, 존재, 등을 설명-서술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절의 주어가 표출하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그 주어는 그 주어의 의미의 범위를 한정하여야 할 한정사나, 한정구를 끌어서 부러야 하고, 그 문 구조의 서술 동사의 의미를 더 분명히 드러내려고 하면, 그 서술 동사는 한정-부사나, 부사구를 끌어서 써야 한다.

문법 규칙이 복잡한 언어가 더 발달한 것이고, 그 규칙이 단순한 언어가 덜 발달한 언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은, 그 언어에, 그런 규칙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언어 사이에는 어떤 등급도 있을 수 없다.

언어학자만 아니라,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분들은 모두 모든 언어들을 다 평등하게 대우하고들 있다. 언어가 다르면, 거기에서 우러나는 **언어 문화**도 각각 특징을 지닌다.

7. 비는 말의 문 구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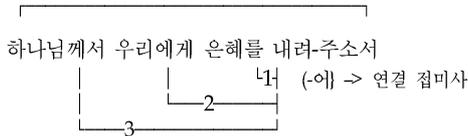
비는 말의 문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 문 구성 방식을 살펴 본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원

하는 문 구조의 기본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3) 가. 긍정 기원문 구조의 예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긍정 기원문 구조의 구성 공식: [나께서 나에게 나를 주어 주소서]

긍정 기원문 구조의 심층 구조:



위에다가 보인 긍정 단순 기원문 구조의 구성 방식과 그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들이 문 구조 안에서 수행하는 통어 관계를 놓고서는 지면 관계로 줄인다. 다만, 서술 동사 {내리-}가 연결 접미사 {-어}를 대동하고서 다음 동사를 {주-}를 맞아서, 그와 함께 기원을 이룸에 눈을 돌리면, 그 문 구조가 타동 단순문 구조를 이룸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이론은 뒤에 따로 설명하겠다.

나. 긍정 복합 사역 기원문 구조의 예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오게 하여 주소서
 긍정 복합 사역 기원문 구조의 구성 공식: [나께서 (나에게서) 나의 나를 (나에게) 나에게 주어 주소서]

나 = (나)

긍정 복합 사역 기원문 구조의 심층 구조: 이것은 사역 긍정 복합문 구조로 전환함

아버지의 나라가 오다. =>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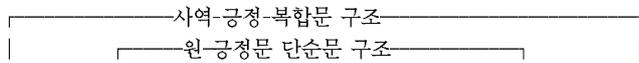
=>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여-준다.

— 긍정-단순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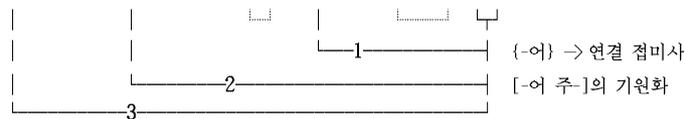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다 =>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오게 하다



{-가} => {-를} (자동사가 타동사로 전환함.)



=>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오게 하여-주소서



위에 보인 긍정 단순문 구조를 긍정 복합 사역 기원문 구조로 전환하면,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은 문 구성 구조도를 작성할 수 있다. 지면 관계로 전환 이론 설명은 줄인다.*

8. 비는 말의 종결법

필자는 비는 말의 문 구조 구성을 놓고서는 앞 항목에서 개관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비는 말을 마칠 때에 쓰는 종결어법을 놓고서 살펴 보려고 한다. 이것은 기도말을 올리는 사람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실 분을 향하여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말의 예법이다. 이것은 표현 양식으로 드러난다. 그것이 어법으로는 종결 접미사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의 비는 말의 종결법의 구성을 보면, 그것은, 흔히, 문 구조에서, 서술 어절을 이룬 서술 동사의 어간에 첨가하는 종결 접미사, 또는 종단 접미사열-종단 기호-로 이룸을 볼 수 있다.

* 문 구조의 전환 이론에 관한 것은 필자가 저술한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종결법은 문 구조에서 어디에 흔히 분포하여 있는가. 아래의 예문에서 서술어에 분포하여 있는 종결 접미사의 분포 위치를 살펴 보면, 긴 설명을 덜 수 있겠다.

(3	A 예문 1	B 예문 2	C 종결법의 형태	D 종결법
	가. () 은혜를 내리 <u>소서</u> .	() 우리를 보 <u>소서</u> .	{-소서}	명령
		내리 <u>십시오</u> .	보 <u>십시오</u>	
	나. () 은혜를 내리 <u>주소서</u> ,	() 우리를 보 <u>주소서</u> .	{-아}{-소서}	청원
	내리 <u>주소시오</u> .	보아 <u>주소시오</u> .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보다윗사람을 직접 만나서, 무엇인가를 빌 때에는, 두 가지 점에 유의한다. 그 하나는, 자기의 소원이나 청원을 받아 주실 분에게 말을 직접적으로 건넬 때에는, 상대인에게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와 거기에 첨가할 자격 접미사는 줄인다. 또 하나는, 비는 말로 이룬 문 구조의 끝을 **종결 접미사**로 구성한다. 가령, 명령형과 청원형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함을 우리는 위의 예에서 보았다. 예문에서 밑줄을 친 부분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표출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문에 보인 일람표에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예문에서 보는 종결 접미사는 다 {-소서} 명령형으로 끝맺었다. 그 밖에는, 다른 가지의 표현 양식은 없을까. 있다. 그것을 아래에서 일람하여 본다.

(4) 표출 언어의 표현 양식

○ 평서법의 종지형에 드는 접미사들의 배합법과 표현 양식 - 상대적 상관 관계성을 토대로 -

표현양식	공손용법	정식용법	정식용법의 친어용법	중간용법	평교용법	평교용법의* 친어용법
평서법	-나이다	-버니다	-오/-아요	-네	-다	-아
문의법	-나이까	-버니까	-오/-아요	-나	-니	-아
권유법	-사이다	-버시다	-오/-아요	-세	-자	-아
명령법	-소서	-버시오	-오/-아요	-게	-라	-아
(등분)	< ?! >	(극존칭)	(보통존칭)	(보통비칭)	(극비칭)	(반말)**
	-읍/습나이다					
					

이제, (4)의 표현 양식 일람표를 잘 살펴 보면, 문법가들이 어법 표현 양식을 보는 눈을 달리 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곧, 문법가들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을 보아서, 말의 준비칭^{尊卑稱} 높임과 낮춤을 결정하는 것으로 다룬다. 그러나, 나는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과는 서로 상대적 상관 관계성 *correlative relations of the relativity*을 지니고서, 이를 인식하면서, 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곧, 기도인은 상대하는 분을 마음에 두고서, 그분과 자기 사이의 상대적 상관 관계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기도 말의 표현 양식 *style*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하게 보면, 말의 표현 양식에는, **평교용법**과 **정식용법**이 있다. 그 용법을 조금 누그러서, 서로 친한 사이에서는, 그런 용법을 **정식용법의 친어용법**으로 전환하여서 쓸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위라든지, 손위의 사람이 손 아래의 사람을 대할 때에, 정식용법을 쓰기에는, 어딘가 멋적은 데가 있고, 그렇다고 하여서, 평교용법을 쓰기에는, 좀 어색하고, 그렇다고 하여서, 자기의 처지를 탁 풀어서, 평교용법과 친교 용법 사이에 있는 **중간용법**을 써서 말을 한다. 그리고, 정식용법으로 말을 할 상대인데, 그보다 자기를 그분 앞에서 더 공손히 드러내어야 할 때에는, 공

* 필자가 보는 말의 표현 양식
 ** 종래의 문법가들이 보는 말의 등분

손용법으로 문 구조를 끝마친다. 그리고 또, 평교용법을 쓰는 사이에서, 그 친밀도가 더하면, 평교용법의 친어용법^{이른 바, 반말을 쓴다. 나는 그런 반말투의 표현 양식을 평교용법의 친어용법이라고 한다.}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 기도문의 번역문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손용법으로 구성된 문 구조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비는 말의 양식을 정식용법 {-니니다, -니니까}으로 기도를 드리다가, 무엇을 간구하는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할 때(?)에는, 갑자기 그 표현양식을 바꿔서{-소서}-이것은 명령 접미사임을 써서 빈다,고 한다. 표현양식을 혼용하는 것은 말의 예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말의 표현양식을 일정하게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말의 예법에 들어맞는다.

기도말을 구성할 때에는, 기도말의 문 구조에서, 그 문 구조의 주어로 쓴 명사-동작주,또는 사역주와 서술어로 쓴 동사에 참가하는 종결 접미사를 일치-호응시켜서 써야 한다. 이것은 말의 표현법의 한 가지 규칙이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한 주 기도문의 문 구조들을 잘 살펴 보면, 종결 접미사를 예법대로 통일성 있게 공손용법대로 사용하였음을 본다. 그것은 예문 (1)에서, 그런 예를 볼 수 있다. 곧, (1)의 번역문 구조에서 보면, 말끝을, 곧, 문 구조의 종결 부분에, 비는 말의 표현 양식을 일정하게 {-소서}를 쓴 것을 본다. 그 표현양식을 한 가지로 선택하여 쓴 점에 있어서는 잘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는 말의 문 구조 구성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아래의 예문 두 가지를 좌우로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1)에 예로 든 기도문의 표현양식을 보면, 그것은 공손용법으로 구성하였음을 안다. 그 예문을 다시 아래에 옮겨서 적고서, 그 주 기도문을 정식용법으로 전환하여서, 비교하여 보면, 또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말 어법 규칙에서 벗어난 번역문의 예:

- | | |
|--|---|
| 가. 표주새번역 -공손용법으로 번역한 것 | 나. 표현양식을 정식용법으로 바꿔 본 것 |
| a.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a.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 b. 이름을 기록하게 <u>하시오며</u> , | b. 이름을 기록하게 <u>하시며</u> , |
| c. 나라가 임하게 <u>하시오며</u> , | c. 나라가 임 <u>하시며</u> , |
| d.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게 <u>하시옵소서</u> . | d.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게 <u>하십시오</u> . |
| e.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 e.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
| f.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 <u>하여</u> 주시옵고, | f.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 <u>하여</u>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 <u>하여</u> 주시고, |
| g.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u>마시고</u> , | g.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u>하시고</u> , |
| h. 악에서 <u>구하시옵소서</u> . | h. 악에서 <u>구하십시오</u> . |

아래의 (5가)의 예문에서, 밑줄을 친 부분을 보면, 서술어절은 {하시오며, 하시옵고, 구하소서}로 끝맺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용서하여 주시옵고}로 적은 데가 있음을 본다. 그런 말끝을 동일한 어법 규칙으로 통일할 수는 없을까. 곧, (5가b,c,d,g,h)등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비는 말의 표현양식을 {...하시고, ...하시옵소서}로 썼는가 하면, (5가f)에서는 {... 하여 주시옵고}를 씀으로써,

종결법의 통일성을, {하-}를 {하여 주-}로 썼다. 곧, 통일성이 있어야 할 어법을 깨뜨렸음을 본다. (5나b,c,d,g)에서는 {하시며}{하십시오}를 쓰고, (5나f)에서는 {...하여 주십시오}를 씀으로 {하}:{하여 주}를 이름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접미사:접미사열]의 대립 관계로 보면, 통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것은, 곧, 표현양식의 대립 관계 [명령:청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양식

들은 기도인이 얼마나 비는 말을 정확히 사용하였는가, 함을 단적으로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용법을 놓고서는 다음 항목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9. 비는 말의 어법 구분

비는 말에서, 표현 예법을 통일하려고 하면, 비는 말의 표현양식을 통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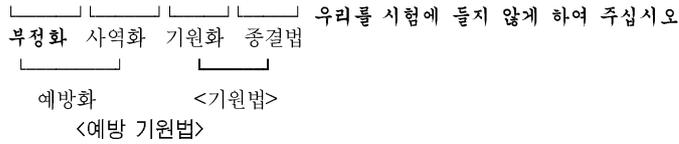
(6) 명령법	기원법	표현형식의 대립 관계
입하시며	입하여 주시며	{하-} : {하여 주-}
이루소서	이루어 주소서	{이루-} : {이루어 주-}
용서하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 : {용서하여 주-}

(6)에 올린 예를 보면, 기도인이 쓰는 말의 종결 방식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용법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곧, 명령하는 어법과 기원, 또는 간원하는 어법과 사이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표현 양식의 차이점이 있음을 확실히 하여 두어야 한다. 이것은 어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7) \	명령법	간원법/청원법	차이점
가. 공손법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소서
나. 정식용법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쓰는 표현 양식을 일람표로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곧, 비는 말의 기본법과 그 법을 문 구조로 확장하는 과정을 일람하여 본다. 그리하면, 가)는 단순 명령법, 나)는 기원법, 다)는 사역 기원법, 라)는 부정 사역 기원법으로 쓰는 서술어절의 확장법을 볼 수 있다.

(8) 비는 말의 기본문 구조의 서술 유형과 그 유형을 써서 문 구조를 확장하여 가는 순위	서술어에 첨가한 접미사 유형	서술어절을 확장한 예
가. 확장 순위 (1)	{소서} ┌ 종결법 <명령법>	주십시오 연필을 주십시오
나. 확장 순위 (2)	{소서} [-아 주-]{소서} ┌ ┌ 청원화 종결법 └ └ <기원법>	주십시오 -아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다. 확장 순위 (3)	{소서} [-아 주-]{소서} [-게 하-][-여 주-]{소서} ┌ ┌ ┌ 사역화 기원화 종결법 └ └ └ <기원법> <사역 기원법>	주십시오 -아 주십시오 -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 확장 순위 (4)	{소서} [-아 주-]{소서} [-게 하-][-여 주-]{소서} [-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십시오 -아 주십시오 -게 하여 주십시오 -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위의 일람표를 자세히 살펴 보면, 우리의 기도말의 서술어절을 구성하는 방식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줄인다.*

10. 비는 말의 표층 구조와 그 참뜻

- 대조 문법을 토대로 하고서 번역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
- 전환 이론으로도 설명할 것 -

우리말로 구성된 주 기도문에서는, 헬라어의 어법 규칙을 끝어서, 문 구조 구성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헬라어의 어법 규칙은 주 기도문의 구절구절을 주석 설명할 때에, 헬라인들을 그런 식으로 비는 말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로써 족하다. 한국사람의 기도하는 말 법칙은 아래와 같다. 헬라어의 통어규칙을 심층 구조 속에 있으므로, 그것은 대조 문법 이론을 적용하면, 그런 문법 규칙은 표면 구조에 표출하지 않는다.

(9) 주 기도 문 구조의 구성소 중에서 심층구조에 남아 있는 것과 표층 구조에 표출한 것

── 표출 언어 (표층 구조-표현한 말)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우리에게)(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우리에게)(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우리에게)(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리어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11. 대조 문법

우리가 주 기도문을 번역하는 것은 헬라어 문법규칙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된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다. 그리하자면 헬라어 문법규칙이 담고 있는 뜻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우리말로 번역하여야 한다. 한 언어로 구성된 문장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잘 하려고 하면, 두 언어 구조 사이에다가, 대조 문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조 문법을 만들려고 하면, 두 언어 구조가 지니고 있는 통어 규칙이 서로 다름을 분석하여 내어야만 된다.

*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두 논문을 참고하여 주기를 바란다.

김 창락, 주기도문의 번역과 주석상의 문제점, 성서 한국, 1992년 6월 제8권 제1호
 박 창해, 주기도문의 통어 구조, 성서 한국, 1992년 6월 제8권 제1호

하나의 언어 구조가 가지고 있는 통어 규칙을 다른 언어 구조는 지니지 못함이 보통이다. 그 두 언어 구조 사이에 서로 다른 통어 구조의 특징을 알면, A 언어 구조가 지니고 있는 규칙을 B 언어 구조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런 대조 문법을 만드는 작업은, 먼저는, 두 언어 구조를 각각 잘 분석하여 놓아야 하고, 버금, 그 두 언어 구조를 정밀하게 대조하는 작업을 착실히 하여야 한다. 그런 작업이 끝나면, 그 두 언어 구조 사이에서, 서로 다른 구성소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연구 결과로 대조 문법을 이루면, A 언어 구조에 있는 이런 요소는 B 언어로는 이렇게 번역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세울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하여야 할 바는, 주석적인 설명을 문법 이론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요소는 A 언어 구조를 읽는 분들이 신학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뿐이다. 신학 부분에서는 그런 주석이 필요할 것이고, 지식을 지니고 있는 신도들에게는 우리말 성경을 주석하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지닌 그런 요소를 설명하여서 들려 주면, 그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안: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대조 문법 연구를 공동으로 하여 감이 필요한 것 같다. 공회나, 어떤 기관에서 대조 문법 연구소를 열면, 동참하려고 한다.